

당대의 자연철학 집약된 몸의 의학

동서양 의학에서 바라본 몸의 차이

김 호 |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몸이란 무엇인가? 동서 의학에서 몸을 어떻게 보는가는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다. 동양의학 혹은 서양의학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몸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서양 고대의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혹은 갈렌의 의학을 현대 동양 의학과 비교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20세기 후반 분자와 유전자 분석의 수준까지 심화된 서구의학의 발달과 동양의학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동·서양의 두 의학과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과 밖이 교감하는 감각현상인 동양의 몸

사실 동양에서 몸이란 겉으로 드러난 외형의 개념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氣)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몸은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하고 또 공간적인 존재기도 했다. 역사적이란 의미는 나의 몸이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의 정기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모두 축적돼 전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간적인 존재란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많은 음식들, 곧 자연의 동·식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소유주인 나의 몸과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인간만이 지닌 지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사물(외물)에 대한 내부의 감응이 곧 지각이라면 내외의 교감에서 감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몸이란 내외의 교차 혹은 교감에서만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몸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외연이며 무한한 연장(extension)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대우주 곧 자연의 영양분

(氣)을 들이마셔 내부에 간직함으로써 생명력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의 허준(1539~1615)과 같은 의학자는 이런 정기(精氣)의 호흡과 온축을 중시했는데 그에게 머리로부터 척추를 지나 신(腎)에 이르는 정기의 순환 그리고 이 정기를 잘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양생의 척도였다.

이에 비해 허준과 동시대인인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하비(1578~1657)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의학론에 기초하면서도 인체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역사적으로 하비를 근대의학의 창시자라고들 평가하지만 하비 스스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유학길에 올랐던 이탈리아는 갈렌 의학의 전통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및 플라톤 등의 인간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식물은 단지 성장과 성장만을, 동물은 감각 및 운동 기능을, 그리고 인간만이 오직 이성을 갖춘 생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심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심장은 생기(生氣, 혈액)를 뿜어내는 곳으로 곧 생명의 시작이며 소유주인 인간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

인체를 기계로 본 서양의학

하비에게 제일 중요한 몸은 심장 그리고 피(생기)였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생산·소비되는 피의 양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토록 많은 양의 피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비는 우리가 잘 아는 팔뚝을 동여매는 실험을 통해 '심장을 통한 피의 순환'을 밝혀내고 혈액의 대순환을 이론화했다. 그리고 후일 데카르트는 하비의 심장 박동과 생기론을 기계적인 인간관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심장을 내연 기관으로 파악한 근대적인



서양의학이 인간의 몸을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면, 동양의학은 내외의 교감에서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이해했다. 그림은 16세기 중국에서 제작된 <측신인도>.

간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몸은 몸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당대의 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7세기 초 동서를 막론하고 몸을 이해하는 시각은 당시의 자연철학적 이해와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허준과 같은 동양 의학은 인간의 정기를 유지하는 의학론으로 전개되면서 수양론에 가까워졌다. 정기의 유지가 단지 신체를 양생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인 함양에 이르게 되면 인체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소화(消化)돼버린다.

이에 비해 하비의 생기론적 의학설은 이후 기계론자들에 의해 근대적 인간론으로 변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형으로 국한된 몸과 이를 바라보는 해부의 눈길, 덧붙여 정밀한 가설과 실험들이 동반됐다. 생리학상의 발달과 그 결과로 완성된 서양의 근대적인 신체관은 동양의 그것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긴 시간의 흐름에서 동서의 차이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몸'을 다시 생각하면서 역사에 기대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반문해본다.●